

‘에너지 연구소기업’... 한전 등에 업고 사업 확대 박차

전력연구원, 지난해 ‘KEPCO 연구소기업’ 3곳 설립

기사입력시간 : 2019/07/04 [08:49:00]

조영관 기자

한전 20% 출자... 대외 이미지 제고·세제 지원 혜택



▲ 대전시 문지동 소재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 매일건설신문

“한국전력의 기술력과 기업의 경영자원, 정부의 지원이 결합돼 ‘혁신형 창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김숙철 원장은 “연구소기업을 통한 기술사업화로 신성장동력 발굴 및 육성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소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라 정부출연기관 등이 공공연구기관 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공공연구기관이 자본금 20% 이상을 출자해 특구 안에 설립하는 기업이다.

한국전력(전력연구원) 연구소기업 설립방안에 따르면 'KEPCO 연구소기업'은 ▲한전 직원이 기술과 현금을 공동출자하는 직원창업모델 ▲한전과 외부기업이 기술과 현금 등을 공동투자하는 공동창업모델 ▲한전이 기존 기업에 기술 등을 현물출자·전환하는 기업전환모델 등 기술성격 및 시장특성에 따라 3가지 모델로 나뉜다.

이에 따라 전력연구원은 지난해 ▲한국에너지솔루션(대표 송일근)-전력설비 순환전류 제거기술 ▲케이오앤엠(대표 이상규)-IoT 활용 전력설비 진단기술 ▲구조실험네트워크(대표 심낙훈)-구조 및 재료 실험대행 컨설팅 등 총 3개 기업을 연구소기업으로 설립했다.

정부 지원에 따라 연구소기업에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지원 사업 및 세제 지원의 혜택이 따른다. 공공연구기관의 인지도를 활용한 회사의 대외이미지 제고 효과 또한 크다. 한국에너지솔루션의 경우 전력연구원 부원장 출신을 대표로 한전과 외부기업이 공동투자 형식으로 설립한 사례다. 그만큼 연구소기업으로 인한 이점이 크다는 방증인 셈이다.

김숙철 전력연구원장은 “올해 5개의 연구소기업을 설립하기 위해 현재 등록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설립된 연구소기업들의 사업을 정착시켜 성공사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김숙철 한전 전력연구원장 © 매일건설신문